

- 요지: 사랑스럽고 지각 있는 자녀들아, 언제나 너희 각자가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1층으로 가야 한다.
- 질문: 너희 자녀들 각자는 분명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 대답: 끊임없이 너희들의 가슴에 바바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지식을 간직해라. 너희 자신 안에서 그것을 되새기고 소화시켜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힘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각자는 틀림없이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은밀한 노력을 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명랑하게 지낸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이고, 그들이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도취감을 가진다.

옴 산티.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옴 산티, 옴 산티”라고 두 번 말했다. 쉬브 바바가 한 번 말하고, 브라마 바바가 한 번 말한 것이다. 밥과 다다는 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두 분이 “옴 산티, 옴 산티”라고 말해야 한다. 누가 먼저 말했느냐? 누가 두 번째로 말했느냐? 처음은 쉬브 바바가 말했다: 옴 산티. 나는 평화의 대양이다. 그 후에는 누가 말했느냐? 다다의 영혼이 말했다. 바바가 너희 자녀들을 일깨운다: 옴 산티. 나는 언제나 영혼의식이다. 나는 결코 육체의식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끊임없이 영혼의식으로 지낸다.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조차도 미묘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몸이 없는 쉬브 바바가 “옴 산티”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오직 한 번만 온다. 나는 언제나 영혼의식이다. 나는 환생의 사이클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찬양은 독특하다. 나는 무체의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신봉의 길에서도 또한, 사람들은 쉬바를 무체의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고 한다. 무체인 한 분이 숭배를 받는다. 그는 결코 몸을 통해서 탄생하지 않는다, 즉 그는 결코 육체의식으로 되지 않는다. 물론, 그곳에서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가 거하는 서틀리전으로 내려온다. 쉬바의 이름과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는 무체다. 그는 절대로 몸을 갖지 않는다. 무체인 한 분이 숭배받는다. 너희 자녀들은 지각에 이런 모든 지식을 가진다. 너희들은 신봉을 해왔다. 너희 자녀들은 그림을 보았다. 황금시대와 은시대에는 형상을 가진 이들이건, 형상을 갖지 않은 분이건 어느 누구도 숭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너희들의 지각에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형상이 없다는 것이 들어갔다. 그는 미묘하지도 않고 물질적인 형상을 갖지도 않는다. 슬픔의 제거자, 행복의 공여자 그리고 정화자라는 그의 찬양이 노래된다. 너희들은 정화자를 다른 어떤 이의 형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의 지각 안에도 없다.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는 서틀리전의 거주자들이다. 1층이 있고 그 다음 2층이 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은 비물질 세계이고, 그곳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거주하는 층이다. 미묘한 몸을 가진 이들은 2층에 거주한다. 몸을 가진 이들은 3층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혼란해질 필요가 없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 외에는 아무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저 너머에 있는 곳이 영혼들의 세계다. 그곳을 비물질 세계라고 부른다. 그곳은 우리 영혼들 모두의 세계인, 비물질 세계다. 그 다음 우리 영혼들은 물질 세계로 온다. 영혼들은 저 위에 사는 반면 몸을 가진 영혼들(살아있는 이들)은 여기에 산다. 이것이 너희들의 지각에 남아있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몸 없는 바바의 자녀들이다. 우리들도 역시 처음에는 몸 없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었다. 영혼들은 비물질 세계에서 지낸다. 지금조차도 그들은 계속 역할을 하려고 몸의 형태 안으로 내려온다. 그곳은 몸 없는 아버지의 세계다. 너희들이 영혼이라는 도취감이 있어야 한다. 불멸하는 것들에 대한 도취감이 있어야 한다.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도취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몸의 도취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육체의식이라고 부른다. 육체의식인 이들이 영혼의식인 이들보다 더 나으냐? 누가 지각 있느냐? 영혼의식인 이들이다. 영혼은 불멸하는 반면 몸은 없어진다. 영혼이 말한다: 나는 84생을 태어난다. 우리 영혼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고의 지역에 머문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러 여기로 온다. 영혼들은 말한다: 오 바바여! 물질 세계에는 몸의 바바가 있고, 비물질 세계에는 무체의 바바가 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브라마를 프라자피타 브라마라고 부른다; 그는 여기에 존재한다. 그곳에서는 우리 영혼들 모두가 형제들로서 아버지 한 분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아버지 쉬바와 함께 살고 있다. 지고의 영혼의 이름은 쉬바이며 영혼들의 이름은 살리그람이다. 영혼들의 창조자가 있어야 한다. 언제나 계속해서 너희들의 진심과 대화해라. 너희들이 이제껏 받아들인 지식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노력해라.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다. 제일 먼저, 너희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영혼이라는 신념을 가져라.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틀림없이 유산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마치 계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한 영혼들의 나무가 존재하기 전에 틀림없이 그것의 씨앗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가장 시니어(연장자)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 그의 자녀가 2~4명 있으며, 그 다음 그들의 다른 아이들이 있다; 저 나무는 계속 자라서 커진다. 계보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 사람은 아무개 등의 자손이다. 너희 자녀들은 모든 영혼들이 비물질 세계에 산다는 것을 안다. 그런 그림도 역시 있다. 가장 높은 분이 아버지이다. 너희 자녀들의 지각에는 저 바바가 이 몸에 들어왔다는 것이 있다. 영적인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들을 가르친다. 서틀 리전에서는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황금시대의 어느 누구도 이 지식을 갖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만이 와서 합류시대에 너희에게 이 지식을 준다. 아무도 인간 세계 나무에 대한 이 지식이 없다. 사람들은 사이클의 기간이 아주 길다고 써 놓았다. 아버지가 지금 너희에게 설명한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지금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은 영혼들의 고향으로서 아버지, 자녀들, 형제들이 사는 곳이다. 오직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몸을 취득할 때만, 형제 자매들이 된다. 우리 영혼들 모두는 형제들이다. 틀림없이 형제들의 아버지도 역시 있을 것이다. 그는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다. 모든 영혼들은 몸 안에 있는 동안 그를 기억한다. 황금시대와 은시대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불순한 세계에서는 모든 이들이 그를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라반의 감옥에 있기 때문이다. 시타는 “오

라마여!”라고 소리쳐 부르곤 했었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은 은시대의 라마가 아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라마라고 믿는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을 기억한다. 영혼들이 소리쳐 부른다. 너희들은 지금 반 사이클 동안은 누구도 소리쳐 부르지 않을 것임을 아는데, 너희들이 행복의 나라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너희에게 설명한다; 다른 누구도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은 영혼이 지고의 영혼이고, 그래서 영혼이 지고의 영혼과 합쳐진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영혼들은 불멸하다. 단 하나의 영혼조차도 파괴될 수 없다. 아버지가 불멸하는 것처럼 또한 영혼도 불멸하다. 여기에서 영혼들은 불순하고 타모프라단해지며, 그 다음 아버지가 영혼을 순수하고 사토프라단하게 만든다. 온 세상이 타모프라단해져야 하고, 그 다음 사토프라단해져야 한다. 불순한 세계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와야 한다. 그를 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는 불멸하고 우리 영혼들도 또한 불멸하다. 이 드라마도 역시 불멸하다.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세계의 역사와 지리가 반복되는가를 안다. 우리의 역할은 네 가지 시대 모두에서 지속된다. 우리는 태양 왕조가 되고 그 다음 달 왕조가 된다. 달 왕조는 두 번째 등급과 같다. 천상의 14도인 이들을 태양 왕조라고 부를 수는 없다. 사실 그들은 신인이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신인들은 완전히 악덕이 없고 천상의 16도로 가득 차 있다. 라마를 천상의 14도라고 한다. 오직 너희들의 84생의 계산만이 설명된다. 새로운 것이 낡게 되면 그 안에 그만큼의 즐거움이 없어진다. 처음에 너희들은 완전히 순수하고, 그 다음 몇 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은 몇 살이 되었다고 말한다. 빌딩의 예가 있다. 모든 것이 똑같다. 이 세계는 큰 무대와 같다. 하늘의 원소는 아주 거대하다; 그것은 끝이 없다. 아무도 어디에서 그것이 끝나는지를 말할 수 없다. 만일 너희들이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면, 그것의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거대한 브람 원소도 끝이 없다. 과학자들은 그것의 끝을 보려고 아주 많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브람 원소는 매우 거대하며, 그것은 끝없는 것이다. 너희 영혼들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산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아주 큰 빌딩 등을 짓는다. 지상의 공간은 매우 크다. 또한 농지 등도 있어야 한다. 그저 영혼들만이 그곳에서 산다. 어떻게 영혼들이 몸 없이 먹을 수 있느냐? 그곳에서, 영혼들은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는다. 그곳은 먹거나 경험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너희 자녀들은 단 한 번 이 지식을 받는다. 그 다음 한 사이클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준다. 이런 도취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신인 종교에 속했었다. 너희들이 말한다: “바바, 5천년 전에 우리는 당신에게 왔었고, 슈드라에서 브라민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당신에게 옵니다.“ 그가 몸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기가 다다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체기관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나도 또한 신체기관의 부양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달리 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쉬바의 탄신일을 축하하지만, 그는 몸이 없다. 어떻게 그가 생일을 가질 수 있느냐? 인간들은 하나의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어떻게 내가 와서 너희 자녀들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칠 수 있느냐? 오직 아버지만이 와서 너희에게 인간에서 신인들로 바뀌는 라자 요가를 가르친다. 오직 나만이 정화자이며 지식의 대양이라고 불린다. 나는 나무의 처음, 중간, 마지막을 안다. 너희 자녀들은 바바가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너희에게 모든 지식을 설명한다는 것을 안다.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의 역할도 또한 이해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정화자라는 것을 이해했다. 각자의 찬양은 다르고, 각자의 임무도 다르다. 대통령, 수상 등이 있다. 영혼들이 말한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는 수상이다.“ 영혼이 몸 안에 있지 않다면, 그는 말할 수 없다. 쉬브 바바는 몸이 없다. 그도 역시 말하기 위해서는 신체기관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갠지스 강이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묘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쉬바는 그저 한 점이다. 어떻게 그가 입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가 와서 이 사람 안에 앉고, 그에게서 지식의 갠지스가 흘러나오게 한다.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기억한다: “오 정화자여, 오소서! 이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그는 모든 의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오직 그분만이 불순함을 정화하는 지식을 가진다. 모든 불순한 이들을 정화시키는 단 한 분의 의사가 있다. 황금시대에는 모든 이들이 병이 없다. 락쉬미와 나라얀은 황금시대의 주인들이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가르쳐서 그들이 병이 없게 되었느냐? 오직 아버지만이 와서, 너희에게 고귀한 행동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계속 그들의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 황금시대에서 너희들은 자기의 행동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슬픔이나 병이 없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슬픔을 준다. 황금시대와 은시대에는 그들의 카르마의 고통이라고 말할 슬픔의 문제가 없다. 아무도 행동, 중립적인 행동, 죄 되는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모든 것이 처음에는 사토프라단하고, 그 다음 사토, 라조, 타모로 된다는 것을 안다. 황금시대에서는 5원소가 사토프라단하다. 우리의 몸조차도 사토프라단한 원소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 영혼들이 2도 낮아질 때 몸도 그에 따라 낮아지게 된다. 세계도 또한 2도가 감소한다. 오직 아버지만이 여기 앉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기억과 사랑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지금부터 아버지의 슈리마트에 따라서, 너희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즉 자기의 행동에 대한 벌을 경험하지 않을, 그런 고귀한 행동만을 해라.
2. 소멸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도취감을 갖지 말아라. 심지어 너희 몸조차도 소멸한다; 그것에도 도취감을 갖지 말아라. 지각 있게 되어라!

축복: 너희에게는 이 낯은 세계가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너머에 머물면서 너희의 본래의 나라에 속해라.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것은 만지지도 않는데, 오직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만 써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오래된 세계는 너희에게는 외국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초월해서 머물러야 한다. 이 말은 낯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성질이든, 산스카라든, 그것들에 아주 조금도 이끌리지 말라는 뜻이다. 너희들의 본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가 되어라. 즉, 너희의 영혼에 관해서는 너희 스스로를 지고의 지역의 주민이라 여기고, 너희의 신성한 가족에 관해서는 마두반의 주민이라고 여겨라. 그런 도취감을 유지해라.

슬로건: 자멜라(격동)에 사로잡히지 말고, 끊임없이 만남의 멜라에 머물러라.

*** 옴 산티 **OMSHANTI** ***

아비약트 신호 - 변함없이 명랑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느긋해지고 관용적이 되어라: 거룩한 백조의 특질은 단순한 말을 쓰고 단순한 태도와 단순한(순수한) 시선과 느긋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밥다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과 제일 가깝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항상 밥다다의 마음의 옥좌에 앉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생각들이 전부 다 실현되기 때문에, 느긋하고 단순하며 청결해 보인다. 그들의 태도, 말, 관계, 연결은 모두 똑같다.